大韓工業敎育學會誌
第31卷 第 1 號 pp. 146-169.

충청북도 직업교육 중·장기발전 방안

오승균* · 우상호** · 은태욱*** · 김진권**** · 김진수*****

<국문초록>

'VEC 2010'은 2010년까지 충청북도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for Chungbuk)에 대한 중· 장기 발전 방안의 비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교실정에 맞도록 '3-Type 교육과정'의 유형을 선택 도입하고, 각 권역별로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전문화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또한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형고등학교를 운영한다. 충청북도 직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대학진학을 위한 계속교육과 취업을 위한 종국교육으로, 이원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VEC 2010'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의 중· 장기 운영 체제 유형을 일반 실업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단일형, 복합형)로 제시하였다.

둘째,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유형을 '3-Type(취업중심형, 진학중심형, 창업중심형)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한다.

셋째,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중· ·장기적 ·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충청북도 직업교육의 내실화 방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의 학력제고, 직업기초능력 신장, 공동실습소의 운영 내실화,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의 행· 재정지원, 교육과정 및 진로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VEC 2010, 3-Type 교육과정

* 교신저자 : 오승균(sgoh@hansei.ac.kr),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교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업계고등학교는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수준의 산업 인재 양성과 학생 개인의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해가는 상황에서 실업계고등학교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의 목표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생산 인재들을 양성·공급 하였던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부터 학생, 학부모 및 산업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체들은 심각한 생산 인재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 인재 부족은 생산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야 하는 현실과 매년 10여만 명에 달하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아무런 직업 준비 없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생산 인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 체재의 미흡으로 진로 및 전공 선택과 생산 인재 양성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적·외적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안(1995. 5. 31)', '직업기술교육 개혁안(1996. 2)', '교육개혁 5개년 계획(1999. 3)',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2000. 1)'과 최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5. 12)',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2005.12)'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School-to-Work), 계속교육 활성화(Work-to-School)와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이라는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직업교육의 다양한 방안들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직업교육혁신방안 추진 로드맵을 통한 장기적인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내륙지방에 형성된 산업구조의 지리적 여건 및 산업패러다임과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 실태 및 실업계고교 제반 문제점을 진단·보완하고, 직업교육 주요업무 추진의 최적화 및 행·재정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의 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충청북도의 지역적인 특성 및 자체 수용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실업계고등학교 발전 방안과 실천을 위한 직업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충청북도 직업교육이 당면한 현안 문제를 분석하고, 충청북도의 지역의 산업구조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외국의 직업교육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미래의 직업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문헌을 고찰한다.

둘째, 충청북도의 직업교육정책 방향, 실업계고등학교 운영 현황,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유형 등을 파악하여,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의 문제점 및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충청북도의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한 권역별 단위학교의 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에 맞도록 계열별로 '3-Type 교육과정'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다섯째, 충청북도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고등학교의 구조 조정 및 중·장기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족시키고자 4단계의 절차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실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 정부간행물, 충청 성장동력산업 충북지역 포럼자료, 제1, 2, 3차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울산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의 실업교육 또는 직업교육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직업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체, 직업교육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실업계고등학교 교사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와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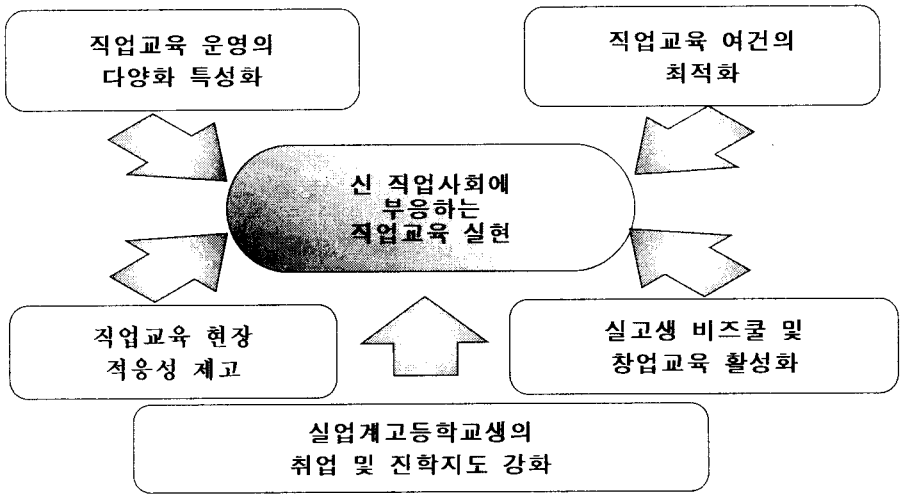
4단계에서는 충청북도 소재 실업계고등학교 교사와 지역 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문항의 답지를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설문 조사하고 통계처리 하였다.

Ⅱ.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운영 현황 및 실태

1. 직업교육 정책 방향

2005년 충청북도 교육청은 '신 직업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실현'이란 직업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5개 영역으로 직업교육 운여의 다양화 및 특성화, 직업교육 여건의 최적화, 직업교육 현장 적응성 제고, 실업계고등학교의 비즈쿨 및 창업교육 활성화, 실업계고등학교의 취업 및 진학지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충북 직업교육 정책 방향

2.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일반 현황

가. 시·군별 학교 현황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는 충청북도 교육청 통계자료(2005)에 의하면 현재 32개교 106개 학과 621개 학급이 있으며, 충북 인구의 절반이 되는 청주시의 실업계고등학교 학급수는 204개 학급으로 1/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사 현황

충청북도 교육청 통계자료(2005)에 의하면 실업계고등학교의 보통교과교사 대 전문교과 교사 비율이 농업계열은 136/219(62%), 공업계열은 331/517(64%), 상업계는 253/53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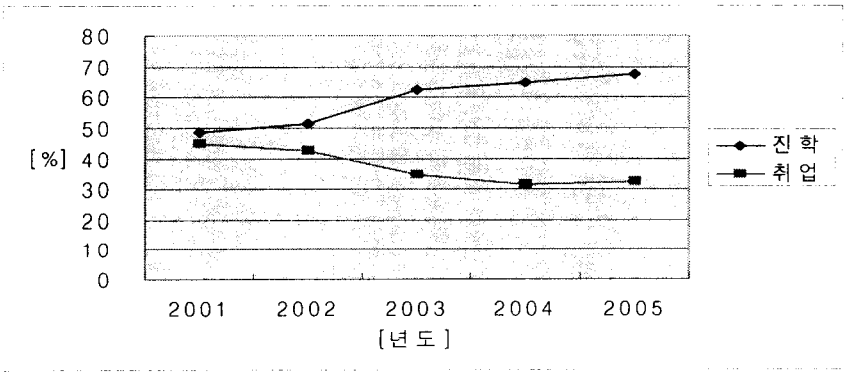
다. 학생 진로 실태

학생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다. 진학자 중 4년제 대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업률은 30%대 초반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1>과 [그림 2]로 나타내었다.

<표 1> 졸업생 진로현황

년도	졸업자수	진학자				취업자	
		합계		4년제대학	2년제대학	비율	계
		비율	계				
2005	6,852	67.5%	4,622	1,658	3,014	32.5%	2,230
2004	7,938	64.8%	5,146	1,867	3,279	31.2%	2,480
2003	8,280	62.2%	5,154	1,595	3,559	34.6%	2,862
2002	9,384	51.3%	4,816	1,253	3,563	42.3%	3,974
2001	10,921	48.4%	5,290	1,120	4,170	45.1%	4,921

자료: 충청북도 교육청 통계자료(2005).



[그림 2] 졸업생의 연도별 진로 현황

라. 계열별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실업계고등학교는 <표 2>와 같이 전국적으로 713개교가 있으며 충북에는 30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계열 과가 개설되어 있는 광혜원고와 상업계열 과가 개설되어 있는 매괴고를 포함하면 32개교가 된다.

<표 2> 계열별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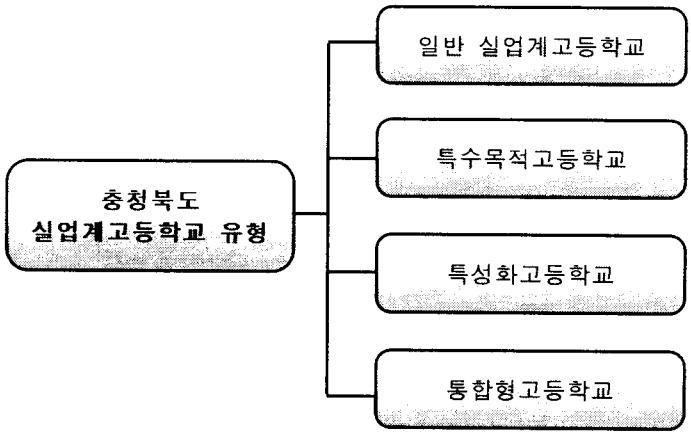
계열	농업	공업	상업	수·해양	가사·실업	종합	계
전국	31(0)	212(76)	212(124)	8(0)	64(17)	186(79)	713(296)
충북	6	11	13(6)	-	-	-	30(6)

주: ( )는 사립학교임

이 중 가사 · 실업계열 고등학교는 1개교도 없으나, 증평정보고와 충주예성여고에 가사계열 학급만이 존재한다. 증평정보고에는 조리과학, 문화관광, 뷰티미용 학급이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업계 사립 고등학교는 296개교이며 이 중 충북은 6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마.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유형별 운영 현황

현재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체제 유형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4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 2개교, 특성화고등학교 4개교, 통합형고등학교 1개교, 나머지는 일반 실업계고등학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유형

이 중 일부는 연구 · 실험 ·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Ⅲ. 충북 실업계고등학교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교사와 산업체에서 인식하는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안 문제 인식과 앞으로 직업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교사용과 산업체용 각각의 설문지를 우편발송하고, 회수된 설문지를 취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1. 실업계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

가. 응답자 특성

2005년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담당 교사 전체 7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의뢰한 결과는 <표 3>와 같이 총 510명이 응답하였으며 공업계 교사의 응답률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업계(67%), 농업계(57%)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계열별 교원 현황 및 응답률

계 열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교원수	136	356	253	745
응답자수	86	255	169	510
응답률(%)	63	72	67	68

전체 응답자의 경력별 분표를 보면 5년 미만이 11.6%, 5년 이상 15년 미만이 33.7%, 15년 이상이 54.7%로 경력이 많은 교사가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응답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읍·면 이하가 72.9%, 충주·제천이 67%, 청주시가 64.4%순으로 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응답률이 높았다.

나. 조사 분석 결과

<표 4>은 직업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나타난 것으로 직업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은 직업교육의 현안 문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부재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였고, 8번 문항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또한 9번 문항의 평균값이 평균이하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현장의 일관적인 정책 홍보와 연계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직업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n	M	SD
1-1 이원화에 따른 학교 교육 혼란정도	510	3.65	.64
1-2 직업교육 정책 부재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510	3.73	.55
1-3 신입생 선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510	3.78	.52
1-4 실업계 고교의 부정적 시각	510	3.77	.53
1-5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편성	510	3.44	.70
1-6 전문교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미비	510	3.07	.79
1-7 산학협동 체제 미비	510	3.54	.64
1-8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저해	510	2.95	.82
1-9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인식정도	510	2.85	.68
계	510	3.42	.65

<표 5>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현안 문항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의 문항에서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하여 완성 교육적 성격(취업)과 계속 교육적 성격(진학) 때문에 이원화 교육에 따른 혼란정도 의견이 전체 510명 중 376명으로 73.8%를 차지하였다.

<표 5> 직업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분석　단위 : N(%)

문항번호 / 척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매우많다	136 (26.7)	149 (29.2)	209 (41.0)	195 (38.2)	91 (17.8)	41 (8.0)	110 (21.6)	46 (9.0)	17 (3.3)
많다	240 (47.1)	247 (48.4)	211 (41.4)	226 (44.3)	197 (38.6)	138 (27.1)	205 (40.2)	113 (22.2)	68 (13.3)
보통	88 (17.3)	88 (17.3)	66 (12.9)	63 (12.4)	159 (31.2)	189 (37.1)	153 (30.0)	167 (32.7)	263 (51.6)
없다	34 (6.7)	19 (3.7)	22 (4.3)	19 (3.7)	54 (10.6)	105 (20.6)	33 (6.5)	137 (26.9)	123 (24.1)
전혀없다	12 (2.4)	7 (1.4)	2 (0.4)	7 (1.4)	9 (1.8)	37 (7.3)	9 (1.8)	47 (9.2)	39 (7.6)
합계	510	510	510	510	510	510	510	510	510

<표 5>의 1-2 문항에서와 같이 직업교육에 관한 침체는 정부의 정책 부재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구조 조정을 하지 못하여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다. 또한 1-3문항과 같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성적 위주의 진학지도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켰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은 전체 510명 응답자 중 420명으로 82.4%를 차지하였으며, 1-4문항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편견과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직업교육에 대한 침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510명의 응답자 중 421명으로 82.5%를 나타내고 있다. <표 6>과 같이 직업교육 체제 개혁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직업교육 체제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6> 실업계 교사들이 인식하는 직업교육 체제 개혁 방안에 관한 선호도

직업교육 체제 개혁 방안에 관한 선호도	n	M	SD
2-1 특성화고교로의 전환	510	3.27	.82
2-2 코스제 운영의 통합형 고등학교	510	3.08	.85
2-3 직업계열과 인문계열 분리 운영의 통합형 고등학교	510	2.92	.89
2-4 산-학간 연계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510	3.47	.70
2-5 직업 훈련기관의 이수학점을 실업고 학점으로 인정	510	3.11	.85
2-6 시설설비와 신입생 미달현상이 심각한 실업고에 일반고 전환	510	2.78	.85
2-7 경쟁력 없는 비선호학과 폐과 후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한 학과로 통합	510	3.43	.75
계	510	3.15	.82

또한 충북지역의 실업계고 학과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면 어떤 학과가 신설되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표 7>와 같이 111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중 디자인 계열이 신설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학생중심의 교육과 시대의 흐름에 맞다'라는 의견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신설이 요망되는 학과로는 전기 · 전자 · 통신계열, IT · BT관련 학과, 건설관련학과, 인터넷 정보 컴퓨터 관련학과와 건설관련학과 등으로 나타났다.

<표 7>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신설 유망학과의 응답결과

신설학과	응답수	계열			근무경력		
		농업	공업	상업	5년 미만	5-15	15년이상
디자인 계열	25		1	24	2	12	11
전기,전자,통신계열	16		15	1	1	10	5
IT,BT 관련학과	10		9	1	1	5	4
건설관련학과	8		8		1		7
산림자원 및 농업환경	7	6		1	1		6
인터넷, 정보 컴퓨터	6		2	4	1	1	4
관광 및 레저학과	4		2	2		2	2
물류유통 및 상업	4			4			4
미용	4			4		2	2
유아교육, 사회복지과, 간호과	4			4		1	3
로봇 및 산업장비	4	1	3		1		3
애완동물과	3	3					3
조리, 제빵	3	1	1	1		1	2
항공 및 자동차	3	1	2				3
금속 및 신소재학과	3		3				3
한약분야학과	3	1	2		1	1	1
웰빙, 유기농업과	2	2					2
화훼	2	2			1		1
계	111	17	48	46	10	35	66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에 대한 선호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n	M	SD
3-1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교과서 자율 운영 방안	510	3.60	.66
3-2 보통교과-전문교과 최저이수기준 완화 방안	510	3.49	.70
3-3 교육과정 이수한 학생에게 자격과 연계시킨 자격증 부여 방안	510	3.65	.66
3-4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공동실습소 활성화 운영 방안	510	3.30	.78
3-5 진로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등 정의적 측면 교육의 강화방안	510	3.82	.43
3-6 산 · 관 · 학 협력체를 만들어 현장실습 제도의 체계적 정비방안	510	3.81	.47
계	510	3.61	.62

교사들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는 <표 8>과 같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진로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등 정의적 측면의 교육 강화와 형식적 현장실습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산·관·학 협력체를 만들어 현장실습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84.5%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격과 연계시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75.3%),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개발·적용하는 방안(69%),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최저이수 기준을 현행 '82단위'에서 완화하는 방안(61.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9>와 같이 구조 조정시 과원 전문교과 교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과원 전문교과 교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명예 퇴직을 유도하여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이 가장 낮았다.

<표 9> 구조 조정시 과원 전문교과 교사에 대한 대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 전문교과교사에 대한 대책	n	%
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과원 전문교과 교사 문제를 해결한다.	249	48.8
② 과원 교사는 산학협력 전담교사나 진로지도 교사 등으로 유도한다.	73	14.3
③ 부전공 자격연수제도를 통해 과원 교사 문제를 해결한다.	170	33.3
④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한다.	7	1.4
⑤ 기타	11	2.2
계	510	

2. 산업체 종사자의 인식 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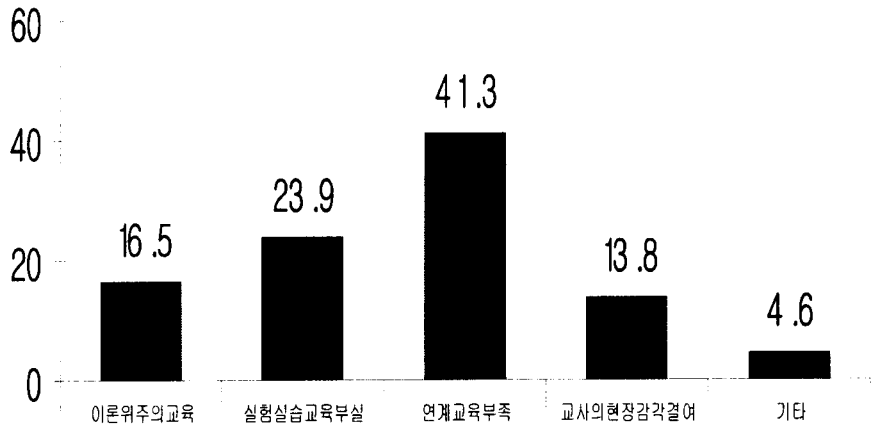
충청북도 전체 산업체수 97,506개중 지역별 유층 무선 표집을 한 후 245개 업체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109개가 <표 10>과 같이 회수되었다. 청주·청원 지역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회수율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

<표 10> 지역별 설문지 회수율

지역별	청주·청원	충주·제천	기타 군지역	합계
전체산업체수	39,835	24,661	33,010	97,506
배부수	100	62	83	245
회수	48	24	37	109
회수율(%)	48.0	38.7	44.6	44.5

나. 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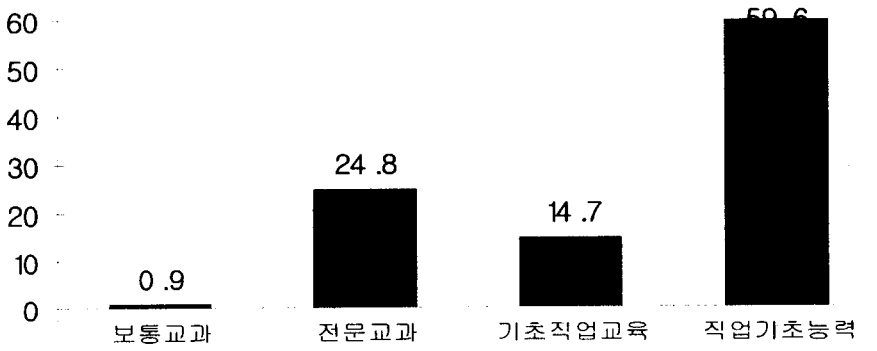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방향, 실업계고등학교 체제개편, 현장실습, 창업교육에 대한 산업체에 종사하는 고용자의 인식과 직업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조사 결과 [그림 4]와 같이 연계교육의 부족(41.3%)이 가장 높았으며, 실험·실습 교육의 부실(23.9%), 이론 위주의 교육(16.5%), 교사의 현장 감각 결여(13.8%)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비중을 두어야 할 교과 영역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의 신장(59.8%)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교과영역(24.8%), 기초직업교육·직업윤리(14.7%), 보통교과(0.9%)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체에서는 현장에서에 직무수행의 자질과 능력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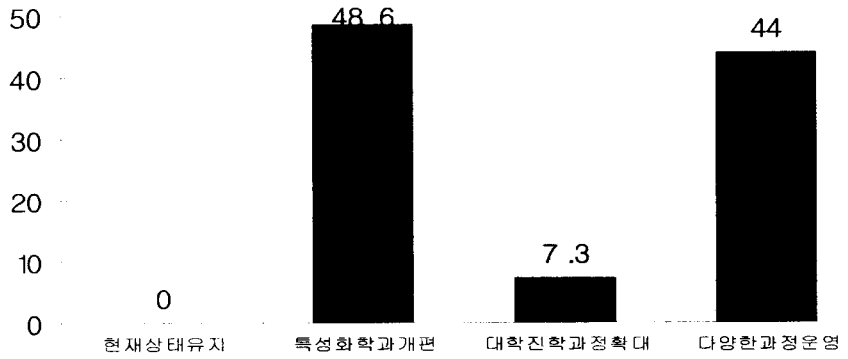


[그림 5]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비중을 두어야 할 교과 영역

이 밖에 학교와 산업체간의 연계교육의 대하여 98.1%가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산업체 종사자는 학교와 산업체간의 산학연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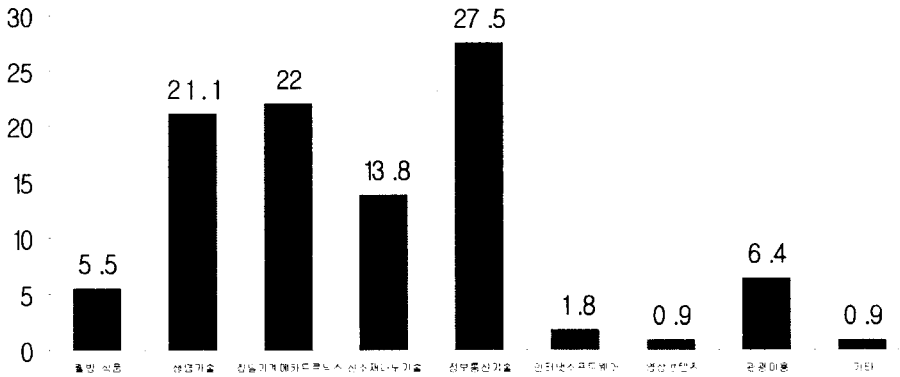
실업계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나 초빙교사의 활용에 대하여 '필요하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이 31.2%로 나타났다. '필요없다'와 '모르겠다'는 의견은 2.7%로 낮게 나왔다. 따라서 산학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현실성 있는 산학겸임교사나 초빙교사의 활용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

산업체에서 인식하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방향에 대해서 특성화학과 개편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과정운영(44%), 대학진학 확대(7.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방향

산업구조를 고려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 개편 분야에 대한 결과로 정보통신기술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22%), IT와 BT가 (21.1%), 신소재와 나노기술(13.8%), 관광 미용(6.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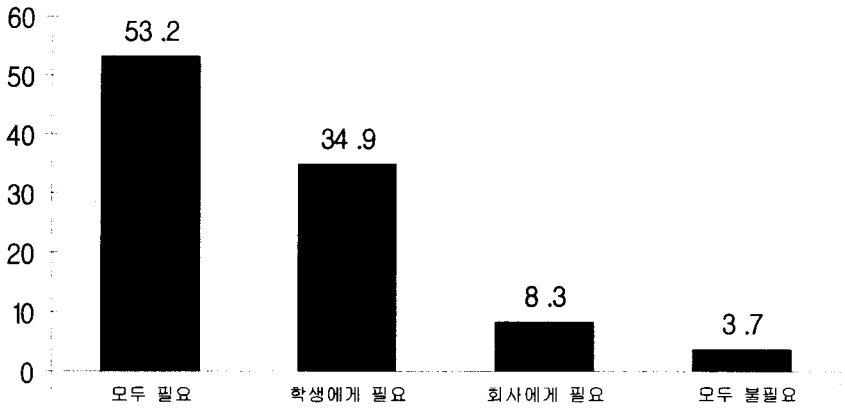


[그림 7] 산업구조를 고려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 개편 분야

또한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은 3개월에 대한 인식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이상(22.9%), 1개월(19.3%), 2주일 이하(5.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에서 학생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은 학생들의 참여 의지 부족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적응력 부족(31.2%), 기능 및 지식 부족(25.7%), 부적절한 실습 기간(3.7%)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체에서 바라본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의 필요성으로는 학생과 회사 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에게는 필요하나 회사에는 불필요하다는 인식(34.9%), 산업체 인력 수급에 필요(8.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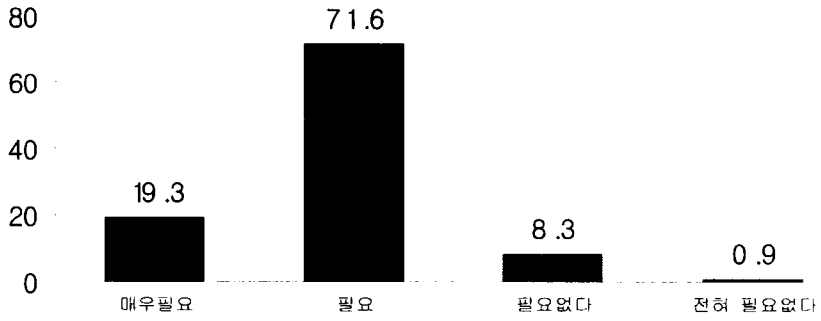
[그림 8]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필요성에 대한 산업체 인식

이상과 같이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전공과 산업체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과 산학 연계에 있어 좀 더 협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의 요구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은 [그림 9]와 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91.3%로 매우 높았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창업 교육 내용으로는 잠재능력 발견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개념과 이론 익히기(33%), 올바른 태도와 인간관계 형성(19.3%), 리더십(0.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창업교육 강사의 수급 분야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으로는 창업 컨설턴트가 47.7%로 가장 높았으며 성공 기업인(36.7%), 창업보육 센터 교수(13.8%),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의 요구

실업계고등학교에 적합한 창업교육 방법으로는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창업교육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중심의 모의 창업활동(36.7%), 전문가에 의한 간접경험(11.9%), 학교기업 운영(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체 종사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학교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Ⅳ. 충북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 개편과 내실화 방안

1. 권역별 실업계고등학교의 중·장기 체제 개편

충청북도의 실업계고등학교 중·장기 체제 개편 방안을 다음 <표 13>과 같이 권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표 13> 충북 실업계고등학교 중·장기 체제 개편 방안 권역별 분류

권역	시·군
청주·청원권역	청주시, 청원군
남부권역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중부권역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북부권역	충주시, 제천시, 단양시

권역별 체제 개편 방향은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체제 설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청주·청원 권역

청주·청원 권역의 클러스터 모형은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클러스터, 생명산업 클러스터 등 IT와 BT관련 산업이다. 현재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는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클러스터, 생명산업 클러스터는 오창과 오송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 각 계열별 학과개편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청주·청원 권역 농업계고등학교 체제는 장기적으로 오송지역의 BT 클러스터와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되도록 생물공학 관련학과(바이오 생명정보과, 환경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과학과)와 생태 보전, 웰빙&로하스, 농촌의 자원, 자연환경, 문화 등과 같은 농촌 어메니티(amenity) 관련 학과로 2~3개 학과군씩 통합하거나 신설하여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주·청원의 공업계고등학교 체제는 장기적으로 청주기계공고, 미원공고는 통합형고로 충북공고, 전산기계고, 부강공고는 특성화고로 개편 및 유지하고, 기계계열 학과의 밀집도가 높으므로 IT, BT관련학과와 디자인 및 건설관련학과를 신설한다.

청주·청원 권역의 상업계고등학교는 지역 학교의 일부 학과가 중복되어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체제 개편이 요청된다. 즉 행정중심도시로의 변환과 국내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청주·청원지역은 유비쿼터스, 바이오산업, 성장동력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혹은 통합형고 형태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나. 남부권역

보은은 청주권과 남부 3군 지역간의 공간적 매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농특산품 관련과, 관광 산업 관련과, 불교 관련과 등이 유망하다.

옥천은 대전권의 연계성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 근교농업 및 농기계 관련과, 무공해 공업 관련과, 도시 서비스 관련과 등이 유망하다.

영동은 전통영농문화와 국악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지역으로 과실류 가공 산업 관련과, 전통 악기 관련과, 관광 개발 관련과, 금속 가공 관련과 등이 유망하다.

이에 따라 남부권역의 농업계열학교는 과학영농특화벨트와 연계되고 영동, 옥천지역의 농업관련 산업과 지역대학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 보은자영고등학교는 생태체험·전통체험 관광농업, 원예치료, 전원문화 관련과를 포함하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 특성화고등학교로, 영동농공고등학교는 지역 음식료품 산업체와 지역대학교과 협약학과 체제로 전환한다. 지역 특산물인 과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로 다양한 코스를 개설하여 계열 통합식 통합형고등학교로 개편하거나 과실류 가공관련 음식료품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업계의 경우 남부권역이 음식표품 제조관련 중소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특히 영동군은 포도, 감 등의 과실류와 관련된 제조업과 연계된 학과 편성이 유망하다.

다. 중부권역

음성은 첨단산업지대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교통요충지로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국토 횡축을 구축하고 있으며, 화훼, 고추, 수박 등 지역 특산품이 발달되어 있다.

진천은 원예 산업의 부가가치증진을 위해 첨단원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농공병진 산업정책의 추진과 농산물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R&D 형태의 테크노파크 조성과 핵심 부품 생산 업종이 발달되어 있다.

증평은 도내 북부와 남부개발축이 교차하는 결절도시로 육성하여 첨단지식산업벨트의 개발효과가 남부의 개발축과 연계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삼타운을 조성하여 국내외 수요자를 대상으로 건강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주권의 기능을 분담 수용한다.

괴산은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지역으로 전통 농수산물 관련과, 청정 산업 관련과, 관광 산업 관련과 등이 유망하다.

중부권역 농업계고등학교 체제는 장기적으로 인근 지역의 농업 관련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코스를 개설하여 원예·화훼관련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부권역의 체제 개편안은 진천농공고의 정보통신과는 광혜원고의 전자과와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광혜원고는 일반계열 학급과 교차 이수하는 통합형고로 발전시키는 것이 유망하다. 중부권역은 통합형고인 증평정보고와 진천상고가 있으며 대체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이 없지만 적극적인 체제 개편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학교로의 변모가 요구된다.

증평정보고는 2001년에 상업계열과 가사계열의 통합형고교로 체제개편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유지 발전시키며 문화관광, 환경산업클러스터 개발 관련 학과의 발전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며 진천상고는 반도체, 신소재 산업,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등 부근 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라. 북부권역

단양은 충주호 주변의 관광지역으로 전통문화 및 불교 관련과, 관광 산업 관련과, 선회 산업 및 신소재 관련과 등이 유망하다.

제천은 의림지, 박달재 등 역사 문화 테마 관광지 개발과 관광 배후지원 산업을 육성하고 간선교통망을 통하여 수도권 산수 관광 및 여가 수요를 흡수하고, 버섯, 산나물, 약초 등 한방 웰빙 타운 조성 및 농특산물의 유통기반 구축과 지역특화식품을 개발한다. 제천시에서도 영화제작에 관심이 크고 지리적 환경이 영화 세트장으로 알맞아 영화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화 관광 산업 관련과, 교통 통신 관련과, 한방 및 웰빙 관련과, 농특산물 유통 및 가공 관련과 영상 미디어산업 관련과 등이 유망하다.

충주는 수안보 지역의 온천지대를 국제수준의 위락단지를 조성하여 월악산의 자연

경관이 결합하는 여가 휴양지구로서 문화 관광 관련과, 온천 개발 관련과, 지식기반 산업 관련과 등이 유망하다.

북부권역 농업계 고등학교 체제는 장기적으로 충주농업고등학교를 환경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특성화고등학교로, 제천농업고등학교는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와 지역대학과 협약학과 체제로, 한방 및 웰빙 관련된 코스제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업계의 경우 첨단지식 산업벨트에 부합한 학과 개편, 영상 산업관련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에 부합하는 학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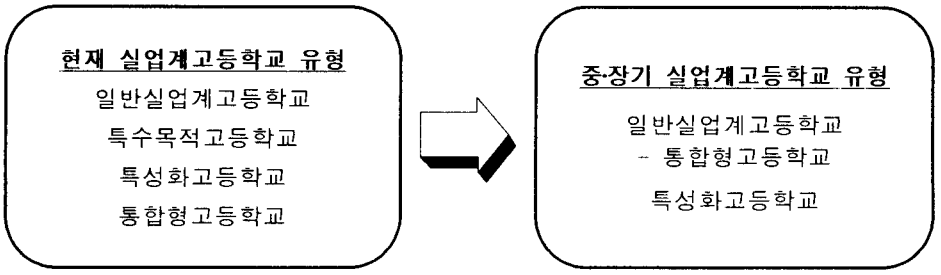
북부권역 상업계열 학과는 장기적으로 지역산업 클러스터와 관광벨트에 연계하여 유비쿼터스, 관광, 비서/뷰티관련 학과 등 특성을 살려서 정부 부처 혹은 산업체와 협약된 협약학과와 통합 고교로의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2. 충청북도의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 개편과 내실화 방안을 기초로 하여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을 'VEC 2010'의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VEC 2010'은 2010년까지 충청북도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for Chungbuk)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의 비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교실정에 맞도록 '3-Type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각 권역별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형고등학교를 운영한다. 나아가 직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통한 계속교육과 취업을 위한 진로 준비 교육을 실시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둔다. 'VEC 2010'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모형

실업계고등학교의 중·장기 운영체제 유형을 그림과 같이 일반 실업계고등학교(통합형)와 특성화고등학교(단일형, 복합형)로 제시하였다.



[그림 10] 중·장기 실업계고등학교의 유형

여기서 일반 실업계고등학교는 통합형고등학교로 직업기초능력에 중점을 두어 계열통합식, 또는 계열분리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정부부처협약, 지자체협약, 또는 산업체협약을 맺어 운영할 수 있다.

나. 실업계고등학교 '3-Type 교육과정'의 유형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유형을 취업중심형, 진학중심형, 창업중심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이수단위를 다음 <표 14>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표 14>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유형

교육과정 유형	국민공통 기본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보통교과 선택과목	전문교과 선택과목	운영 방안
취 업 중심형	56 (12, 12)	26	110	· 재량활동을 전공계열별 기초실습교과로 배정 · 전문교과 선택을 산학연계 인정교과목으로 선택 · 현장실습을 교과로 편성
진 학 중심형	56 (12, 12)	54	82	· 보통교과를 연계교육에 필요한 교과 선택 · 전문교과는 수능직탐영역과 직업기초능력교과로 선택
창 업 중심형	56 (12, 12)	26	110	· 재량활동을 창업관련교과 배정 · 전문교과는 기업실무, 창업실무, 마케팅 전략 등의 인정교과를 개발 및 선택

다. 권역별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중·장기적 체제 개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청주·청원 권역은 오창 과학산업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와의 연계된 IT, BT 관련 학과가 부족하고 보건, 복지, 미용 등의 가사계열 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공업계고등학교는 전공계열과 산업구조와의 차이가 많아 기계·금속계열 학과의 축소와 전기·전자·통신계열 학과의 증대가 필요하다. 남부권역은 농업식품 가공 산업과 기능성 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학과 개편이 필요하며, 지역 관광산업 및 물류관리 관련학과의 개설이 필요하다. 중부권역은 화훼단지, 인삼센터, 첨단지식산업벨트 등과 연계한 학과개편이 필요하며, 각 학교별로 지역 산업단지와 협약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과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통합형고등학교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북부권역은 제천, 단양 지역에 공업계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사계열 학과 신설이 필요하며, 농업계고등학교와 상업계고등학교는 학과가 중복되어 있어 학교별 특색 있는 학과 즉, 환경, 관광, 한방의약 등의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각 권역의 학교별 중기적 개선 방안에 복지·간호, 식품·조리, 미용, 의상

등 가사계열 학과의 신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충청북도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구조 현황 및 추이, 지식기반산업의 전망, 충청북도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산업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시·군별 산업구조와 산업별 클러스터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문헌조사와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정부기관, 직능단체의 연구 자료, 타 시·도 교육청의 연구 사례, 외국의 직업교육 현황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직업교육기관은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계속교육과 직업기초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기초 교육을 위한 전공별 코스제 도입과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단위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최근 단위학교에서 계속형 교육과정, 절충형 교육과정, 진학형 교육과정으로 혼재된 교육과정의 유형을 재정립하여 취업 중심형, 진학 중심형, 창업 중심형 교육과정 유형으로 분류하여 '3-Type 교육과정'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단위학교별로 일반 실업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충청북도의 직업교육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청주·청원 권역, 남부 권역, 중부 권역, 북부 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권역별로 실업계고등학교 체제를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개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권역별로 학과를 구조 조정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클러스터, 특화 단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권역별 학교 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일반 실업계고등학교로 학교 체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북도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을 'VEC 2010'로 축약하여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비전의 목표는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 육성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면

첫째, 단위학교별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지역 산업체와 협의체를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일반 실업계고등학교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체제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학교와 연계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유도해 내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환경의 조성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제고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직업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산업체의 직무 내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 직무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 연구는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하여 충북 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이 높다. 따라서 추후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원도교육청(2003). **강원도 실업계고교 종합발전 계획.**

강경종, 강종훈, 김선태, 박윤희(2001). **통합형 고등학교 운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기도교육청(2005). **경기도 산업구조변화에 대비한 실업교육 대응전략 및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 우수실업계고 연구용역보고서

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김병관, 은기수(2002). **미국의 직업교육과 직업 훈련** : 그 개혁의 전망. 직업교육연구, 21(1).

김종구(2005). 충북 산업연관분석 연구, **한국동서경제연구, 16**(2), 2003-2

김진덕, 이근우(2003). **충북지역 산업인력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충북개발연구원.

김진덕, 이주성, 윤창훈(2003). **충북지역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김진수(2005). **공업교육연구법과 SPSS,** 웅보출판사.

국토연구원(2004).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 방안,** 구토연 2004-13.

노근호, 김윤수(2004).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 충북개발연구원.

대전광역시교육청(2004). **대전광역시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2003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공동평가단 연구과제.

서우석(2000). 초·중등학교에서의 직업기초능력 교육 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4)

서울특별시교육청(2004). **서울시 공업교육 발전 방향 및 실천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구용역보고서.

오승균, 김진수(2005). **3-type 교육과정에 기반한 공업교육 운영 방향 모색.**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의 기술교육 탐색 발표 논문. 한국기술교육학회학술대회, 교원대.

오창보(2003). **지역 육성 산업과 연계한 상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수요 분석: 부산지역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우상호, 김진수(2005). **일반계고와 실업계고의 연계 교육과정,** 한국기술교육학회학술대회, 교원대.

울산광역시교육청(2002). **울산광역시 실업계고등학교 발전방안 연구.**

윤근호, 이재호(2004). **지역산업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3.

이상봉(2005). **직업교육특론.** 미간행 교육자료,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강의 자료.

이종성, 정향진(200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방향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5.

인천광역시교육청(2000). **인천광역시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계획 연구보고서.**

임호권(2005).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담당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들의 직업기**

초능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정철영(2000). **각국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수준 및 교육환경 비교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정태화(1999).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17-27.

지길홍, 김진덕, 고영구(2004). **충북지역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정책,** 사회과학논문집, 20(2)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2005, 2). **충북 지역특성기반의 전략산업 토착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모형연구**

충북CHANGE21(2000).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충청북도

충청남도교육청(2001). **충청남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

충청북도, 한국산업기술재단(2003, 1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충북지역순회 포럼발표자료.

한국직업교육학회(2003). **선진국의 직업교육훈련 개혁 동향과 참여정부의 정책방향,** 2003년도 한국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홍선이(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에 따른 실업계고 관련 후속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4), pp. 96-103.

Gordon, Howard R. D. (2003). The History and Growth of Vocational Education in America. Long grove: Waveland Press.

Gray, K. C., & Herr, E. L. (1998). Workforce Education: The Basics. Allyn & Bacon.

Pautler, A. J. Jr. (1999). Workforce education: Issues for the New Century. P.O., Ann Arbor: Prakken Publications, Inc.

Rojewski, Jay W. (2002). Preparing the Workforce of Tomorrow: A Conceptual Framework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NationalDissemination Center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olumbus, OH.

Scott, J. L. (2001). Overview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merican Technical Publishers, Inc.

Zirkle, C. (2005). New Paradigms of International Vocational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

◎ 논문접수: 2006. 4. 30 / 1차수정본 접수: 2006. 6. 10 / 게재승인: 2006. 6. 24

<Abstract>

Research on development plan of medium and long period of Vocational Education for Chungbuk

*Oh, SeoungKyeun · Uh, SangHo** · Eun, TaeWook**
· Kim, JinKyun** · Kim, JinSoo***

'VEC 2010' is a mid-long term scheme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Education for Chung-buk which is to be accomplished by 2010.

On the basis of this scheme, schools adopt 3-Type curriculum considering their conditions and covert themselves into specialized high school which is associated with local industry cluster.

They also establish combined high schools which run various curriculums emphasizing basic vocational abilities so that they can meet the needs of demanders

The activation plan of Chung-buk province vocational education is a dualized one which is for both ongoing education for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grade and the last education for employment, which is supposed to foster the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knowledge-based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e specific contents of 'VEC 2010' is as follows.

First, VEC 2010 presents 2 kinds of mid-long term management system for industrial high schools: general industrial high school, specialized high school(single type, combined type).

Second, VEC 2010 arranges and run the 3-Type of curriculum of Chung-buk province industrial high schools: employment-centered type, entering higher school-centered type, inaugurating enterprise-centered type.

Third, VEC 2010 divides Chung-buk province industrial high schools into 4 districts and suggests mid-long term reorganization plan of system.

Fourth, VEC 2010 suggests the substantial strategies of Chung-buk province vocational education: scholarship improvement in the vocational investigation course of the government-sponsored scholastic aptitude test, education for improving basic vocational abilities, substantial management of joint laborato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of development of specialized, licensed textbooks. reenforcement of career education.

Key words : VEC 2010, 3-Type curriculum

* Correspondence : Oh, SeongKyeun(sgoh@hansei.ac.kr), Graduate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al
** Graduate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al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al